

2024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5·7급 공채 및 경찰·소방직 대비
사관학교 준비생

고종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1·2·3급 서브노트

합격을 위한 빠른 길

심화 1·2·3급 대비

- 한국사 전범위 79개 소주제로 정리
- 문화유산, 기록유산, 궁궐, 지명, 인물 정리

www.megagong.net
www.megastudy.net

바라해북스



01 | 선사문화의 전개

	기원전 8000년 경	기원전 1500년 경	기원전 5세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1)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 도구: 뿔석기(주먹도끼 등), **슴베찌르개**(후기)
- 경제 생활: 사냥, 채집, 어로
- 사회 활동: 이동 생활, 무리 사회
- 주거 생활: 동굴, 바위 그늘, 막집
- 유적지: 공주 석장리 유적, 단양 금굴, 청원 두루봉 동굴(홍수아이), 연천 전곡리 유적(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덕천 승리산 동굴 등



슴베찌르개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스펀(자루)가 달린 찌르개로서 창을 만들었다.

애니미즘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태양, 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음

예술 활동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치레걸이, 조개껍데기 가면 등을 만들어 몸을 치장하거나 종교의식에 사용하였다.

2) 신석기 시대

- 도구: 간석기(돌보습, 돌괘이, 돌낚), 토기(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 경제 생활: 원시 농경(조, 피 등 잡곡류 경작), 원시 수공업(**가락바퀴**, 뼈바늘)
- 사회 활동: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 주거 생활: 움집(원형, 반지하, 중앙 화덕)
- 신앙 생활: 원시 신앙(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혼·조상 숭배)
-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 양양 오산리 유적, 봉산 지탑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신석기 시대 주요 유물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갈돌과 갈판



암사동 움집터



가락바퀴
직조기술(의복, 그물 제작)



조개껍데기 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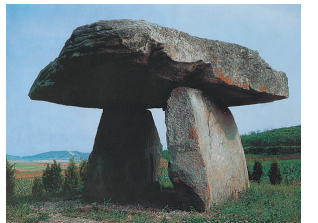
02 | 청동기·철기시대



1) 청동기 문화의 전파 (청동제 농기구 X)

- 도구: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농경용 간석기 제작(반달 돌칼)
- 토기: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등
- 무덤: **고인돌**, 돌널무덤 등

만주와 한반도의 대표적 청동기 유물!



탁자식 고인돌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형태에 따라 바둑판식(남방식)과 탁자식(북방식) 등으로 나뉜다. 탁자식 고인돌은 대체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적이다.

청동기 시대 주요 유물



비파형 동검
(요령식 동검)



반달 돌칼



미송리식 토기
(라오동~한반도 북부 지역)

2) 철기의 보급

- 도구: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 사용, 독자적 청동기 문화(**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 토기: 민무늬 토기, 덧띠 토기 등
- 무덤: **널무덤**, **독무덤** 등
- 중국과의 교류: 중국 화폐(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붓(한자 사용)

철기 시대 주요 유물



세형 동검



명도전
[중국과 경제적 교역의 증거]



독무덤



3) 청동기·철기 시대의 생활

여주 혼암리 유적

- 경제 생활 청동기 시대 벼농사 시작(탄화미 발견)
- 주거 생활 야산, 구릉 지대에 거주, 방어시설(환호, 목책)
직사각형 움집, 지상가옥, 벽면화로, 각종 공동 시설
- 사회 활동 생산력 증대로 잉여 생산물 발생
빈부격차와 계급의 분화, 남녀 분업 촉진
- 군장의 출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출현, 군장(족장)

기타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농경무늬 청동기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

부여 송국리 청동기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은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시대 마을 유적이다. 반달돌칼, 흙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청동 도끼 거꾸집, 붉은 간 토기, 송국리식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다량의 불탄 쌀과 볏씨 자국이 남아있는 토기 조각도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바위그림(암각화)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는 거북, 사슴 등과 여러 종류의 고래가 새겨져 있다. 고려 양전동 알터 바위그림에는 동심원 등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밖에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동심원,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고, 신라 법흥왕 때의 명문도 발견되었다.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

03 | 고조선의 발전

1)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 성립 단군왕검이 건국(B.C 2333), 청동기 문화에 바탕을 둔 최초의 군장 국가
- 발전 요령 지방과 한반도 북부 지방(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출토)
왕 밑에 여러 관직 설치(상, 대부, 장군)
연과 대립, 왕위 세습(부왕, 준왕)

2) 위만 조선의 발전

- 성립 위만의 정변(기원전 194년), 준왕 축출
- 발전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활발한 정복 활동
한(漢)과 예·진 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발전
- 멸망 한무제의 침공으로 왕검성 함락(기원전 108년)
→ 한의 지배(4군 설치)
- 사회 법금 8조(한서 지리지)

단군신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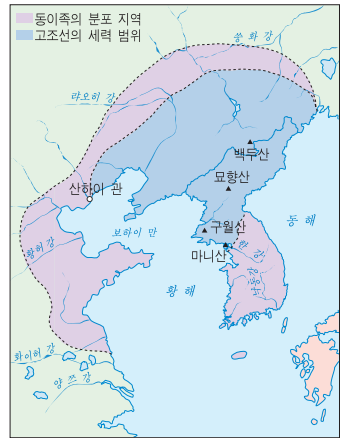
- 천손사상(선민익식)
- 유이민세력과 토착세력의 정치적 연합에 의해 국가 성립
- 농경사회(풍백, 우사, 운사)
- 제정일치의 군장사회(단군왕검)

단군의 건국 이야기

삼국유사(일연, 단군신화 최초 수록), 제왕운기(이승휴), 동국통감 등

고조선의 법 〈한서 지리지〉

……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를 만들었다. 그것은 ①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③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여자들은 모두 정절을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북방식) 고인돌은 만주와 북부 지방에서 주로 출토되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 준다.

위만 조선

위만은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고 했고, 그의 정권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따라서 위만 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였다.
- 노동력을 중시하는 농경 사회였다.
-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 사회였다.



04 | 여러 나라의 성장

■ 연맹왕국

연맹 왕국은 유력한 부족이 연합하여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였고 부족장들에 의해 왕이 추대 혹은 폐위되기도 하였다.



여러 나라의 성장

❶ 우제점법

부여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풍습이 있었다.

❷ 서옥제

혼인한 뒤 남자가 신부 집 뒤에 서옥(사위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이 장성한 후에 아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다.

❸ 민머느리제

머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서 데려다 키운 후, 성인이 되면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예물을 건네주고 결혼하는 풍습이다.

❹ 소도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는데, 이를 통해 삼한 사회가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부여

- 정치 5부 연맹체(왕과 사출도), 왕권 미약
- 경제 농경과 목축, 말·모피·주옥(특산물)
- 풍속 1책 12법(법률), **순장**(장례 풍습), **영고**(제천행사)
우제점법, 형사취수혼(혼인 풍습) 등

2) 고구려

- 정치 5부 연맹체, **제가회의**(국가 중대사 논의·결정)
대가(상가, 고추가)는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둠
- 경제 약탈 경제(부경)
- 풍속 **동맹**(제천행사), 국동대혈에서 조상신 제사
혼인 풍습 : **서옥제**, 형사취수혼

3) 옥저, 동예

- 옥저
 - 정치 군장국가(거수, 삼로)
 - 경제 소금과 어물 등을 고구려에 공납
 - 풍속 **민머느리제**, **골장제**(가족 공동 무덤)
- 동예
 - 정치 군장국가(읍군, 삼로)
 - 경제 해산물 풍부, 방직기술 발달, 특산물(**단궁·반어피·과하마**)
 - 풍속 **족외혼**, **책화** 무천(제천행사)
씨족사회의 전통



여(呂)자형 집터[동예]



철(靑)자형 집터[동예]

4) 삼한

- 정치 마한 54국(목지국 주도), 변한과 진한 각 12국
제정분리 사회 : **신지·읍차**(군장), 천군(제사장)
- 경제 벼농사 발달(저수지 축조), **철 수출**(변한)
- 풍속 **계절제**(5월, 10월), 두레(공동체 조직)

■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

- ① 부여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①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 ② 고구려에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②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였다**. …(중략)…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서 동맹이라 한다. ③ **혼인할 때에는 미리 약속을 하고 신부 집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다. 이것을 사위집(서옥)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 집 문밖에 와서 이름을 밝힌 뒤 무릎을 꿇고 신부와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다.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 부모는 그때서야 사위집에서 자도록 허락한다. 신랑이 가지고 온 돈과 폐백은 사위집 곁에 쌓아 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③ 옥저는 큰 나라 사이에서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고구려는 그 나라 사람 중에 대인을 뽑아 사자로 삼아 토착 지배층과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 ④ **동예는 대군장이 없고, 한대 이후로 후, 읍군, 삼로 등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⑤ **예의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 ④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며, ⑥ **모두 50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큰 나라의 경우에 만여 가, 작은 나라의 경우에 수천 가로, 총 10만여 호이다. …(중략)… ⑦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 이를 천군이라 한다. 여러 나라에는 각각 **소도라고 하는 별읍이 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도망쳐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분석 |

- ① 부여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으므로 우호적으로 묘사되었다.
- ② 고구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초기부터 활발한 정복활동을 펼쳤다.
- ③ 고구려의 혼인 풍속인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동예는 연맹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족 국가 단계에 머물렀다.
- ⑤ 동예의 책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 ⑥ 마한은 54개의 소국, 변한과 진한은 각기 12개국으로 이루어졌다.
- ⑦ 삼한은 제정이 분리된 사회로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 읍차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